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329-345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초례(醺禮)의 종교적 의미

이 희 재

(광주대학교)

《요약》

한국의 전통 관례와 혼례에는 절차상 초례가 있고, 또한 그 의례 자체를 초례라고 이른다. 전통 결혼식의 상을 초례상이라고 하거나 장소를 초례청이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물론 초례는 민간의 의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행해졌던 종교적 의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의해 초례는 위축된다.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의례속에 초례의 의미가 잔존했다. 성년례인 관례의 절차는 성인으로서의 머리모양과 복장과 새로운 이름을 받고 초례를 행했으며 술과 음식을 준비했고, 결혼식의 의례에도 술과 음식을 차리고 의례를 거행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의 의미에 대해서 종교적 의미를 간과한다. 그런데 술과 음식은 다만 아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 초례의 종교적 대상은 천지신명이라고 말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五星列宿를 비롯한 星宿라고 할 수 있다. 바로 上帝나 三清에게 초례를 하지 않는 것은 봉건적 위계질서에 따른 것이다. 전통적으로 황제만이 天地에 제사지낼 자격을 가진 것이며, 민간인들은 조상에게 제사지낼 자격을 가졌을 뿐이다. 그러나 天地에게 제사지낼 경우인 醺禮는 구체적으로는 밤하늘의 별을 통해 올렸던 것이다. 그러한 醺禮신앙의 대상이 되는 별은 五星과 28宿이며, 이 28宿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풍수지리적 용어의 근원이다. 다음은 북두칠성과 본명성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 북두칠성은 북극성과 더불어 일년내내 볼 수 있는 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북쪽 하늘에 上帝가 거주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본명성이란 자신의 태어난 해와 칠성과의 관계다. 자신의 간지에 해당하는 별에 초례하는 것을 본명성초라고 한다. 三清과 상제는 민간에서 보다는 왕실에서의 초례의 주요대상이다. 이러한 초례를 통해서 기원하는 것은 攘災招福이다. 유교적 합리주의가 조선시대의 정신이면서도 유교의 한계는 종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자나 맹자는 인간인 성인의 존재이지, 禍福을 주재하는 초월적 신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초례를 하는 것이었고, 왕실에서도 초례를 행했던 것이다. 민간에서나 왕실에서나 공통적인 것은 재앙을 소멸하고 축복을 구하는 기원이라는 것이다.

초례는 전통의례 가운데 다만 명칭으로만 남아있고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애매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다. 그렇지만 초례상의 술과 음식을 차리고 의례를 하는 것은 거기에는 종교적 기원이 담긴 것이다. 조선시대가 비록 유교적 합리주의의 시대였다고 하지만吉凶禍福에 대한 종교적 기원은 도교적 의례인 초례가 여전히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주제어: 초례(醺禮), 관혼상제(冠婚喪祭), 성숙신앙(星宿信仰), 북두칠성(北斗七星),
본명성(本命星)

《Abstract》

Religious meaning of The Choraе

Lee, Hui-Jae

(Kwangju University)

The Choraе rituals decreased gradually during the Chosun dynasty. Only the folk wedding ritual remains. The reason for this lies in the rank order of feudalism. Only an emperor of the Chinese dynasty can perform a ceremony for Heaven. Feudal lords perform ceremonies limited to their royal ancestor shrines and the guardian deities of their state. Common people perform ceremonies limited to their ancestors.

When people perform prayer expended Heaven and unsuitable being, it's regarded wrong service(淫祀). Choraе rituals also regarded as wrong service. Sometimes Choraе rituals were performed in royal courts and families. Then many Confucians opposed the ritual that regarded wrong ritual to player Heaven. This ritual does satisfy the feudal orders system. Then Cnfucian official suggested deconstructing the Sokeakseо (Worship place in royal court)where Choraе was performed.

During the Japanese invaded, Sokyukseо disappeared. But common people performed the Choraе rituals in their coming-of-age and wedding ceremonies. Most people understand the formal aspect of the Choraе ritual in a wedding ceremony, but they don't understand the religious meaning.

The religious meaning is to pray to Heaven for good fortune with holy purification. When this holy praying to the stary night, one needs keep a spiritual attitude.

The Choraе ritual is usually regarded as a Taoist ritual, but the folk custom for praying to the stars was already evident before Taoism was an influence.

I. 머리말

조선시대에 초례(醺禮)가 국가적 행사로서 점차 퇴락하고 단지 민간의 의례(儀禮)속에서만 남아있었던 것은 봉건사회의 위계질서에 기인한 것이다. 오직 중국의 황제만이 천제(天帝)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제후국은 종묘사직(宗廟社稷)에 제사지내고 서민은 조상(祖上)에게 지낸다는 방식이 당시에는 지켜야 할 예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에 벗어날 때 그것은 음사(淫祀)라고 규정되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초례는 밤하늘의 성숙(星宿)에 대한 숭배이지만, 역시 하늘에 대한 경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음사로 규정되고 더구나 국가에서나 왕실에서의 초례도 천제에 대한 숭배로 간주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종법적(宗法的) 질서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초례를 관장하는 소격서(昭格署)의 철폐를 주장했다.

임진왜란이후 궁중내의 소격서는 관서로서 폐지되었지만, 민간에서는 관혼상제의 의례속에 초례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초례의 의미를 술과 안주를 올리는 의례로만 인식하지 거기에 들어있는 종교적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한국의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관례(冠禮)와 혼례시(婚禮時)에 초례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초례는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의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도교적¹⁾인 의례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도교적인 의례가 조선조의 의례에서 유지되었는지 궁금했다. 말하자면 대단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醺禮의 종교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다음 사항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관혼상제에서의 초례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식에 깃든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은 초례의 신앙대상은 무엇이며, 상호간의 관계가 무엇이며 종교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초례가 일반 가정의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

1 道敎는 기존의 민간신앙을 흡수했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쪽이 아닌 道敎에 가깝다는 의미이지 道敎라는 말은 아니다.

선시대의 국가적 의례로도 거행되었는데 유교를 국교로 한 사회에서 왜 초례가 줄곧 거행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초례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의례가 비교적 기복적(祈福的) 종교적 성격이 약한 유교와 어떻게 조화하며 또한 대립하는 지를 알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종교적 화해와 대립의 한 과정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한국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서 초례의 의미

관례(冠禮)의 절차 가운데 삼가(三加)가 끝난 후 초례가 있다. 이때 초례란 술을 내려 천지신명에게 어른으로서의 서약을 하게 하고 술 마시는 예절을 가르치는 의례이다. 여자의 관례라고 할 수 있는 계례(笄禮)의 경우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초례(醺禮)가 있다.

관례에서 초(醺)란 올리는 술을 말한다. 이를 내초(乃醺)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은 관례자가 주례(賓)와 집사자(贊)에게 절을 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먼저 주례가 관례자(冠禮者)에게 읊(掛)하고 북향하여 축문을 읽는다. 이것이 초사(醺辭)이다. 초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맛있는 술이 이미 맑아졌으니 좋은 안주와 향기로운 술을 절하고 받아 제사지내어 너의 상서로움을 안정시키고 하늘의 경사를 이어 오래 살며 잊지 말라²⁾

『儀禮』에서 보는 관례(冠禮)에서 세 번 옷을 갈아입는 의례가 있는데, 이 성인(成人)으로서의 세 번의 의례 그 자체를 초(醺)라고 한다. 일가(一加)는 옷을 입는 면에서 일초(一醺)는 술을 올리는 의식인데 두 번 째의 의례는 재초(再醺) 그리고 마지막의 의례는 삼초(三醺)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

2 『朱子家禮』 p.134. '醺禮旨酒既清 嘉薦令芳 拜受祭之 以定爾詳 承天之休 壽考不忘'.

3 『儀禮』 卷1. 「士冠禮」 p.48. 學民文化社 影印本

始加란一加라고도 하고 一醺라고도 한다. ([注]始加者 言一加一醺也) 加冠於東序醺之 於戶西同耳 始醺亦薦脯醢 賓降者 爵在庭 酒在堂 將自酌也 辭降如初 如將冠時 降盥辭降也 凡薦出自東房

p.49. 皮弁(사슴가죽으로 만든 갓)을 쓰고 처음 의례와 같이 再醺한다. (加皮弁如初儀再醺)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성년례(成年禮)인 관례 자체가 모두 초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세 번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술과 안주를 달리하여 축사(祝辭)를 하는데 이는 경건한 제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혼례에 있어서 초례는 전통혼례의 결혼식이 신부집에서 행했던 친영(親迎)을 초례 혹은 대례라고 했다. 초례청이나 초례상(醮禮床)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결혼식 자체가 하나의 초례행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술을 주고받는 의미도 알고 보면 천지신명에게 그들의 행복을 비는 종교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관례와 마찬가지로 혼례도 초례가 중요한 의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생의 새 출발을 경건한 의례인 초례상 앞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가 술을 교환하는 의미보다는 천지신명에게 인생의 첫출발을 축원하는 종교적 의례인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초례상에서 올리는 초(醮)는 어떤 종교적 대상에 대해서 축원을 하는지 애매하게 천지신명(天地神明)이라고 얼버무린 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전통관례와 혼례의 축사에 있어서도 그 신앙의 대상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왜 이런 불분명한 상태에서 종교적 의미를 가진 초례가 거행되었는지의 연구는 우선 본래의 초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III. 초례의 대상

도교의 경전에는 여러 가지 재앙을 없애고 액을 없애는 법이 있다. 음양오행의 술수에 의거하는데, 사람의 나이로 운명을 추리하는 것을 기록하니 章表라 하는 것과 같다.

爵弁(면류관 비슷한 모자)을 쓰고 처음 의례와 같이 三醮한다. (加爵弁如初儀三醮...有乾肉折俎饗之其他如初北面取脯見于母)

p.50. 始醮는 처음과 같다(始醮如初...[注]亦薦脯醴 徹薦爵筵尊不徹矣)

再醮에는 두 그릇에는 해바라기 김치와 고동과 육장 두 그릇에는 밤과 포를 놓는다.(再醮兩豆葵菹羶醢兩邊栗脯) 三醮에는 攝酒함은 재초같이 하며 그릇위에 설치한다. (三醮攝酒如再醮加俎饗之 皆如初饗肺)

p.54. 초사에 말하기를 아름다운 술이 이미 맑으니 좋은 안주를 올린다.(醮辭曰旨酒既清嘉薦亶時)...再醮에 말하기를 아름다운 술이 이미 잘 걸러져서 좋은 포를 올린다.(再醮曰旨酒既嘉薦伊脯)...三醮에 말하기를 아름다운 술이 아름다운 그릇들에 늘어놓았다(三醮曰旨酒令芳籩豆有楚).

의식과 함께 贊幣(폐물)를 갖추고, 향을 사르고, 위의 하늘에 아뢰어, 災厄을 없애기 위해 청한다. 이를 상장(上章)이라고 한다. 별 하늘(星辰)의 아래에서 밤중에, 술과 포(脯)를 진설하고, 공물을 올려 천화(天皇)과 태일(太一)과 오성(五星)과 열숙(列宿)에 차례로 제사하여, 상장의 의(儀)와 같이 글을 서서 아뢰는 것을 이룸하여 초라 한다.⁴⁾

여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醺禮는 음식을 차리고 하늘에 기원하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숭배와 경외의 대상은 天皇만이 인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별이다. 그러니까 醺禮는 별이 뜬 시각에 별 하늘을 향하여 무언가를 기원하는 의식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로 초례의 대상이 되는 별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1.五星과 열수(列宿)에 대한 제사

초례 혹은 초제란 밤하늘의 오성(五星)과 열숙(列宿)에를 향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뜻이다.

원시사회 가운데 있어서 천체(天體)에 대한 숭배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보편적으로 행해졌는데, 천체의 변화는 인간들의 생활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눈에 드러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천체와 하늘공간 가운데서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하늘에서 발생하는 구름, 안개, 번개, 바람, 비, 눈 등 자연현상은 인간들에게 따뜻함과 빛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어두움과 차가움, 흑한과 공포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일식과 월식, 구름의 변화를 해석할 수 없었던 당시에는 당연히 이러한 기상의 이변에 대해 민감하고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진 모종의 경고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경외의 심리가 나오고, 숭배하고 제사하며 보우(保佑)를 기원했던 것이다.⁵⁾

초례는 기본적으로 원시사회의 이러한 하늘과 천체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했는데, 이러한 천체에 대한 숭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별들인데 오성과 열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하늘의 현상으로 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리라고 본다.

4 『隋書』 「經籍志」 道經又有諸消災度厄之法,依陰陽五行數術,推人年命書之,如章表之儀,并具贊幣,燒香陳讀云,奏上天曹,請爲災厄,謂之上章,夜中於星辰之下,陳設酒脯,耕餌幣物,歷祀天皇太一,祀五星列宿,爲書如上章之儀,以奏之,名之爲醺.

5 劉 鋒,『道教的起源與形成』,臺灣,文津出版社. 1991. p.7. 참조.

형이상학적인 존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존재야말로 숭배와 경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별을 오성으로 나눈 것은 오행사상과 관련이 있다. 『淮南子·天文訓』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화성(火星)인 영혹(營惑)으로 동방의 신인 태호(太昊)이며 상징하는 동물은朱雀(朱雀)이다.

둘째, 토성(土星)인 진성(鎮星)으로 중앙의 황제(黃帝)이며 상징하는 동물은 황룡(黃龍)이다.

셋째, 금성(金星)인 태백성(太白星)으로 서방의 소호(少昊)가 주재하고 상징하는 동물은 백호(白虎)다.

넷째, 수성(水星)인 진성(辰星)으로 북방의 진옥(顓頊)이 주재하고 상징하는 동물은 현무(玄武)이다.⁶⁾

다섯째, 목성(木星)인 세성(歲星)인데 위에서는 누락되었다. 오행가운데 목(木)은 동방을 상징하는 것이고 화(火)는 남방인데 화를 동방으로 했다. 목성이 상징하는 동물은 황룡대신 상징하는 동물은 청룡이 된다.

다음은 오성과 28숙(宿)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방의 청룡칠숙(혹은 창룡(蒼龍)七宿: 角, 亢, 氏, 房, 心, 尾, 箕)

북방의 현무칠숙(玄武七宿: 斗, 牛, 女, 虛, 危, 室, 壁)

서방의 백호칠숙(白虎七宿: 奎, 婁, 胃, 昂, 畢, 觜, 參)

남방의朱雀칠숙(朱雀七宿: 井, 鬼, 柳, 星, 張, 翼, 轸)

그러니까 사방(四方)에 모두 칠숙이 있는 것이며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 동방은 용(靑龍)의 형태를 이루고, 서방은 호랑이(白虎)의 형태를 이루고, 모두 남쪽에 머리가 있

6 劉 鋒 『道教的起源與形成』 文津出版社, 1991, p.33. 『淮南子·天文訓』, 在沿用『呂氏春秋』十二紀中的五方神的同時, 就增加了五方星宿. 並各有其動物代表, 謂東方之神是太昊: ‘其神營惑(火星), 其獸朱鳥’. 中央黃帝主之, ‘其神爲鎮星(土星), 其獸黃龍’. 西方少昊主之, ‘其神太白(金星), 其獸白虎’. 北方顓頊主之, ‘其神爲辰星(水星), 其獸玄武’. 這靑龍, 白虎, 朱鳥(朱雀) 玄武就成爲漢代的四神.)

고 북쪽에 꼬리가 있다. 남쪽은 새(朱雀)의 형태를 이루고 북쪽은 거북이(玄武)의 형태를 이룬다. 모두 서쪽에 머리가 있고 동쪽에 꼬리가 있다.⁷⁾

이러한 별자리의 배치를 볼 때 풍수지리설에서 흔히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라는 사상적 배경이 별자리에서 유래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성체(星體)의 존재와 운동을 대하면서 극대의 신비감에서 근원 함으로써 초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사회에서는 성신(星辰)의 움직임에 근거하여 방위와 계절의 측정을 확정했다.

이러한 성신에 대한 신앙은 민간신앙으로 후일에 도교적 의례에 흡수되었다. 노자나 장자가 스스로 신앙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았으면서도 도교신앙의 대상이 되었듯 오성열숙(五星列宿)에 대한 신앙도 의인화되고 신격화 된 것이다.

물론 보이지는 않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상제(上帝)의 개념은 오성열숙의 의미 속에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 거주하는 존재는 당연히 하늘의 별에서 산다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상제의 거처는 다름 아닌 하늘의 별 안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장소를 자미궁(紫微宮)이라고 했다. 오늘날 북경의 고궁이름이 자금성(紫禁城)이라는 명칭은 지상에 있어서의 상제인 임금의 거처를 뜻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⁸⁾

비교적 유명한 초례의 대상이 되는 성숙은 태을(太乙, 太一)과 노인성(老人星, 壽星)이다. 이러한 별들은 인성(仁星)으로 태평을 이룰 수 있는 별이라고 간주되었다. 우리나라의 역대왕조에서도 이런 태을에 빈번히 초례했다. 이에 대해 조선초기에 초례를 권유한 기록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太乙(太一)은 하늘의 귀한 신이시니 중국 漢나라 때로부터 내려오며 역대로 받들어 그 돌보심에 따라 상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前朝에서는 福源宮 昭格殿과 淨事色을 두고, 따로 大清館을 건립하였으며 또 艮方(--和寧), 巽方(--충주), 坤方(--부평), 乾方(--귀주)에 차례대로 궁을 두고 宮觀을 세워 초례를 행하여 매양 액운을 당하거나 재변을 만나면 기도를 드리고 따로 大清館에서 醺祭를 지냈습니다. 만약에 군이 행군을 할양이면 장수가 대청관에 나아가 齋戒를 하고 묵으며 醺禮를 지낸 후에 행군을 하였으니, 대개 이는 태을이 어진 별로서 그 별이 비치는 곳에는 싸움과 질병이 일어나

7 『書·傳』“四方皆有七宿，可成一形。東方成龍形，西方成虎形，皆南首而北尾；南方成鳥形，北方成龜形，皆西首而東尾。”

8 馬書田『中國道教諸神』，團結出版社，1995...據『後漢書』卷48，記載：“天有紫微宮，是上帝之所居也”。後人多以紫微垣比喻帝居，故稱禁中爲“紫禁”，至今人們還稱明清北京皇宮爲“紫禁城”。

지 않고 나라가 태평하기 때문입니다.⁹⁾

여기에서 초례의 대상으로 태율이 중요함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민간에서는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로 노인성이 숭배의 대상이었다. 노인성을 보면 수(壽)가 길어진다 하여 노인성을 또한 수성(壽星)이라 부른다. 이 노인성은 남극성(南極星)인데,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남의 부모를 위하여 환갑을 축하하는 시(詩)에 매양 노인성을 많이 인용하여 축수(祝壽)의 말로 사용하였었다.

2. 북두숭배(北斗崇拜)

북두숭배는 옛사람들의 성신숭배 가운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사람의 생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두칠성은 북쪽하늘에 배열하여 국자(혹은 杓)형의 일곱 개의 밝은 별의 합칭이다. 일곱 개의 별을 천추, 천선, 천기, 천권, 옥형, 개양, 요광이라고 부른다. 고대에서는 이 모양을 술을 따르는 자루형(斗形) 혹은 국자형(勺形)으로 상상하여 민간에서는 “작성(勺星)”이라고도 했다.¹⁰⁾

북두칠성은 오늘날의 별 자리로는 ‘큰곰자리’이다. 천선(天璇)과 천추(天樞) 두 별이 연결되어 직선을 이루며, 다섯 배의 연장거리에 북극성이 있다. 이 두별을 “지극성(指極星)”이라고 하며 북방의 표지다. 북두가 이미 방향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용된 까닭이다. 또한 계절을 확정할 수 있고, 그 운행규율로 역법을 제정하는 등의 많이 유용한 것이다.¹¹⁾

옛사람들은 초저녁에 북두의 자루의 방향으로 계절을 확정했다. 자루가 동쪽에 있으면 세상은 봄이고, 자루가 남쪽에 있으면 세상은 여름이며, 자루가 서쪽에 있으면 세상은 가을이며, 자루가 북쪽에 있으면 세상은 겨울이다. 북두칠성은 지평선 아래로 사라

9 『조선왕조실록』, 태종 4년 갑신 2월. 신묘일. 김침의 글.

10 馬書田『中國道教諸神』, 團結出版社. 1995. p.82. “北斗崇拜在古人星辰崇拜中占有突出地位, 因它與人們的生產生活關係十分密切, 北斗七星是在北天排列成斗(或杓)形的七顆亮星的合稱. 這七顆星叫天樞, 天璇, 天璣, 天權, 玉衡, 開陽, 搖光. 古人把這七顆星聯系起來, 想象成古代舀酒的斗形或勺形, 所以北斗在民間又俗稱“勺星”.

11 위의 책. p.83-84. 北斗七星即大熊座. 把天璇, 天樞兩星連成直線, 延長五倍距離, 即可以找到北極星, 故此二星又稱“指極星”, 它是北方的標志. 所以北斗既可用來確定方向, 又可確定季節, 其運行規律對制定曆法也俱有用處.

지지 않으며 단지 북극성을 회전할 뿐이다. 옛사람들이 천신가운데 가장 존귀한 천제의 거소로 인식했다. 28수는 북두로써 중심을 삼는다. 그것은 사방에 감싼 것과 같아서 못별의 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두칠성에 대한 숭배는 신화(神化)하여, 북두진군(北斗眞君) 혹은 북두성군(北斗星君)이라고 불리게 되고 혹은 칠성님으로 신격화되기도 했다. 북두칠성은 산사람과 죽은 사람의 공(功)과 과(過) 그리고 선(善)과 악(惡)을 조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북두는 중앙에 거주하여 사방을 순유(巡遊)하고 세상의 생사와 축복을 관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가지 사악한 것을 없애고 흥한 기운을 없애는 염원으로 북두에 기원하고 예배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팔난(八難)을 극복하고 장생불노하기 위해 초례했던 것이다.

한국의 상례(喪禮)의 절차에는 초례가 없지만, 사람이 죽으면 송판에 일곱 구멍을 뚫어서 북두형상과 같이 만들고 혹은 종이에 북두형상을 그려서 시체를 놓는데 이것을 칠성판(七星板)이라한다. 유교적 의례가 주간 된 조선조의 상례에서 왜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의 형식이 유지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유교의 의례는 저 세상에 대한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 유교적 인생관은 윤회도 부활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조선조가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철저히 훈련된 사회라고 하지만 인간의 한계상황에서 그들이 기원하는 대상은 공자나 맹자가 아니라 밤하늘의 북두칠성과 같은 하늘의 존재였던 것이다.

3. 삼청(三清)과 상제(上帝)

오성과 열숙은 어김없이 눈에 보이는 존재여서 민간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졌지만 이러한 신앙이 좀더 의인화되고 좀 더 형이상학적 존재로 변화한 것이 삼청이나 상제의 개념이다. 이제 삼청은 도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도교의 신앙이며, 인격적 존재로 못별들에 비해 보다 형이상학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삼청은 곧 玉清 元始天尊, 上清 靈寶天尊, 太清 道德天尊이다. 태청도덕천존은 노자가 신격화된 존재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 숭배의 대상은 삼청전(三清殿)이나 삼청각(三清閣) 혹은 삼청궁(三清宮)에 봉안하여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받들었다.

고려시대에는 물론이려니와 조선시대에도 초례를 지냈던 관서가 소격전과 삼청전이었다. 서울의 북쪽 삼청동에 삼청전이 있었고 그 안에는 또한 성제정(星祭井)과 소격서

(昭格署)가 있었다.

『東文選』에는 초례의 기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사(靑詞)의 내용이 실려있는데 아래와 같은 형식의 기원을 담고 있다.

빛나도다 三清이여, 능히 사람이 생존할 때나 죽음 후에라도 건져 주십니다. 정성스러운 생각이 마땅히 하늘과 유통하와 문득 낮은 정성을 바쳐 감히 깊은 상제의 들으심을 구하나이다. 至尊께옵서는 가없이 여기심을 드리우시고, 모든 聖神께서는 사랑을 일으키시어 나의 쌓은 정성을 양찰하시고....항상 높은 宮에 계시게 하고, 先世의 잠긴 혼도 고루 高明하신 도움에 힘입어 모두 쾌락한 동산으로 올라가게 하고....¹²⁾

오성열숙(五星列宿)과 삼청 그리고 상제의 관계는 좀 복잡하지만, 봉건사회의 위계질서상 민간인이 바로 상제에게 기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했다. 우선 왕실이나 국가적 행사에서는 삼청이나 상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東文選』에서 등장하는 소위 국가에서나 왕실에서의 거행했던 초례에서의 청사(靑詞)에서는 임금이 고했던 제사의 대상으로의 상제가 5회, 제(帝)가 4회¹³⁾ 도합 9회 등

12 『東文選』, 卷115. 靑詞, 三清靑詞, 皇矣三清 能度人於存歿 誠哉一念....伏願至尊垂憫 諸聖與慈 諒余積忱 常居紫府 先世況魂 均被高明之佑 悉登快樂之鄉

그 밖에도 “삼청이 위에 계셔 묵묵히 생성을 운행하시고 복두가 가운데 있으니, 실로 喉舌을 맡으셨나이까.(卷115. 靑詞, 北斗靑詞, 三清在上 嚳韓生成 北斗居中 實司喉舌)

“삼청의 도는 신비하고 아득하므로 알기 어렵습니다”.(卷115. 靑詞, 昭格殿 行祈雨兼星變祈讓..“三清秘 冥查難知”).

13 『東文選』 靑詞 가운데 上帝라는 말은 다음과 같다.

① 선대의 임금들의 규칙을 따라서 선을 하고, 상서를 내리게 하는 上帝의 큰 명을 받들고자 秘殿을 맑게 하고 엄숙하게 참(眞)의 법식을 살피옵니다.(卷115. 「乾德殿醮禮靑詞」 崔惟清, “亦允蹈先王之規 作善降祥 尙丕承上帝之命 式清秘殿 恭按眞科”)

② 상제의 보호하고 도와주심을 맞이하는 것이 옳겠으므로, 엄숙히 법을 살피 깨끗한 제사를 지내웁니다. 아득한 곳에서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주시는 사사로움을 더하시어 자복(덩굴같은 은복)이 금방 오도록 옹호하시되 오래도록 많이 누리게 하시고, 蘿圖를 오래도록 보호하시어 크게 성취하게 하여 주시기 우리러 비나이다.(卷115. 「上元靑詞」, 李奎報“上帝之保持 恭按眞科 式嚴淨醮 仰?冥然之聽 優加惠我之私 擁茨福之方將 永于多享 保蘿圖於可久 展也大成”)

③ 上帝께서 거듭 명을 내리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기 바라옵니다.(卷115. 「福源宮行誕日醮禮文」, 鄭誦. “伏願上帝垂仁 列眞委貺 有秩斯祐 奚獨享於一時”)

④ 上帝에게 정성을 바치는 예식을 거행하온데 (卷115. 「小王本命醮靑詞」 上帝享誠之舉)

⑤ 그러나 또한 과연 上帝의 마음에 맞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상제(이 표현은 없음)의 높은

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숙(星宿)에 비해 상제나 신명, 상천(上天), 원청(圓淸)등과 같은 용어는 추상적이고 서민들이 바로 부르기에겐 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이처럼 초례의 대상이 되었던 五星列宿와 특히 북쪽의 북두나 남쪽의 노인성등은 하늘에 있는 별들에 대한 신앙이고, 삼청은 도(道)와 노자를 신격화해놓은 초월적 존재이며, 上帝 역시 하늘의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초례는 인간세계가 아닌 인간 세계를 초월한 거룩한 존재에 대한 신앙행위임을 알 수 있다.

IV. 초례의 종교적 의미

1. 양재초복(讓災招福)의 기원(祈願)

데서 들으심을 더럽히웁니다.(卷115. 「祈雨昭格殿 行醺禮青詞」 “然亦未知果合於上帝之心歟...以瀆蓋高之聽” 帝라는 말은 다음과 같다.

① 엎드려 생각하건데 帝의 마음의 간택하심을 받자와, 오랫동안 어려운 왕업을 유지하여 왔사 온데,(卷115. 「冬至太一青詞」, 金克己, “伏念臣叨受帝心之簡 久持王業之難”)

②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어 덕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항상 총명하게 굽어살피시고 사람에 과실이 있어 요사는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니.....선택하심은 帝의 마음에 있사오니, 사람과 道殿으로 달려 보내 엄숙하게 기도의 의식을 펴오니, 진실한 정성이 밝고 밝은 살피심을 이르러 오게 하 며, 요사스러운 분위기를 그 자리에서 풀고 단 이슬이 두루 적시고,

(卷115. 「祈雨太一醺禮青詞」, 權近, “天無私而德是輔 常聰明而降監...簡在帝心 宜爲民請 伴趨道殿 恭展醺儀 儼款款之誠 格明明之鑑 致令妖氣頓釋 甘露普霑”)

③ 帝의 마음에 어긋남을 얻을까 두려워하고, 복을 부르고 재앙이 쉬게 함은 항상 그윽한 도우심에 바람이 있사옵니다. 이에 상쾌한 행차를 맞이하여 바로 새로운 제단을 모시오니, 하찮은 정성이 하늘에 올라가 들리시어 하찮은 이바지에 하강하여 보심을 바라옵니다.(卷115. 「福源宮太一移排別醺禮青詞」 “恐獲戾于帝心 招福弛災 常有望於陰薦 寔邀冷馭 迺安新壇 儼升聞於查冥 庶降監於菲薄”)

④ 진실로 상제의 마음에서 선택받는데 달렸을 뿐이웁니다.....우러러 성근 별을 바라보오니 모두 붙들어 도와주시는 은혜를 드리우소서. 음양이 화하고 풍우가 제 때에 오도록 하시고 우악하게 하시어 인민이 양육되고 전쟁이 쉬게 하여 앞으로 즐겁고 앞으로 편안하게 되어, 모든 복이 모두 이르러서 사방에 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卷115. 「昭格殿 行祈雨兼星變祈讓 醺禮三獻青」 “實惟帝心之所簡 ...瞻仰烈宿 咸垂扶佑之私 致令陰陽和而風雨時 既渥 人民育而弓矢瘳 將樂將安 諸福畢來 四方無侮”.)

초(醮)란 소재도액(消災度厄)의 법(法)으로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하여 모든 양화와 액을 제거해 주도록 지고신(至高神)인 천(天)에게 탄원하는 내용이 그 핵심을 이룬다.

민간의 관례나 혼례때의 초례의 기원은 수(壽), 복(福)의 기원이 대중을 이룬다. 그래서 그러한 기원문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개인적 기복이 그 의례가운데 깔려있음을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초례에서 무엇을 기원하였는가를 살펴보면 크게 국가적 기원과 개인적 기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초례를 통해서 무엇을 기원했는가에 대한 자료는 민간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고, 국가적 행사의 축원문인 초례청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청사(靑詞)란 초례때 청등지(靑藤紙)라는 푸른 종이에 주자(朱字)로 그 제사를 통해 축원하는 내용을 써서 五星列宿이나 삼청(三清) 혹은 상제에게 알린 후 태워 올렸기 때문이다.

1) 국가적 기복

기우(祈雨), 기설(祈雪), 기양(祈消禳), 기곡(祈穀)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기원이다. 농경시대에 가장 두려운 기상이변을 없기를 기원하고, 재난이 없는 세상을 기원했다. 몇 가지 초례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太一醮禮를 행하였으니, 때아닌 천둥을 빌기 위함이었다.¹⁴⁾

좌정승 하륜에게 명하여 소격전에서 비 내리기를 빌게 하였다.¹⁵⁾

時令을 조화시킬 太一醮禮를 소격전에서 베풀었다.¹⁶⁾

이숙묘를 시켜 時令調和太一醮를 소격전에서 거행하게 하였다.¹⁷⁾

소격전에 나아가 비를 비는 초례를 행하였다.¹⁸⁾

소격전에서 祈雨하는 초례를 행하였다.¹⁹⁾

14 『조선왕조실록』 태종 5년. 12. 2(갑자).

15 『조선왕조실록』 태종 6년. 7. 29(병진).

16 『조선왕조실록』 태종 10년. 9. 11.(을해).

17 『조선왕조실록』 세종 원년. 9. 28(을해).

18 『조선왕조실록』 세종 21년. 7. 25(신미).

19 『조선왕조실록』 세종 22년. 4. 23(을미).

장마비가 그치지 않으니, 명하여 날씨가 개기를 기원하는 초례를 했다.²⁰⁾

『東文選』에 나타난 靑詞에도 마찬가지다.

엿드려 바라건데, 음양이 순조로와 겨울에 잘못되어 夏伏의 재앙이 없게 하고,²¹⁾
우러러 성근 별을 바라보오니 모두 붙들어 도와주시는 은혜를 드리우소서. 음양이 화
하고 풍우가 제 때에 오도록 하시고 우악하게 하시여 인민이 양육되고 전쟁이 쉬게 하
여 앞으로 즐겁고 앞으로 편안하게 되어, 모든 복이 모두 이르러서 사방에 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²²⁾

이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하늘에 이르러四季절이 조화하고, 전쟁의 근심이 없고 농
사는 풍년이 들게 하고 질병 없기를 기원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다.

2) 개인적 祈福

민간에서의 초례는 국가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기복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왕실에서도 민간인과 같이 양재초복의 초례는 지속되었다. 조선중기에 중종대에 이르러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재야사림으로부터 집권한 유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
실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폐지할 수 없다고 하여 왕실내의 초례는 행해졌었다.
왕실 내에서의 초례는 주로 무병장수를 비는 초례였다.²³⁾ 그리고 복을 비는 초례는 開
복신초례(福神醮禮)라고 하여 왕자 탄생등에 행했다.

『東文選』의 청사(靑詞)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기원가운데는 장수(長壽)가 으뜸

그외에도 세종 22년 4.25(정유) “비를 비는 태일초례를 행하였다.”; 세조 4년. 5.10(무술)

“태일 기우초례를 소격전에서 행하니 밤중에 비가 내렸다.”등의 기록이 있다.

20 『조선왕조실록』 세조 5년 6.7(정사)

21 『東文選』 卷115. 靑詞, 冬至太一靑詞, 李奎報 伏望陰陽常順 無冬愆夏伏之災.

22 『東文選』 卷115. 「昭格殿 行祈雨兼星變祈禱 醮禮三獻靑」 “瞻仰烈宿 咸垂扶佑之私 致令陰陽
和而風雨時 既渥 人民育而弓矢瘳 將樂將安 諸福畢來 四方無侮.

23 조선초기의 長壽를 비는 초례는 다음과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 7년. 8.21(갑자) “좌정승 조준이 임금을 위해 壽를 비는 초례를 소격전에서 베풀었다;

태조 7년. 8.23. “임금을 위해 초례를 베풀어 壽를 빌고자 하여 소격전에서 재계하였다.”;

태종 12년 11.4(을유) “궁중에서 초례를 베풀었다. 이 날은 바로 임금의 어린 아들 종의
初度이므로 星宿醮를 베풀어 壽를 빌었다.”

이다.

수명은 大椿과 같이 오래 살게 하시고, 本孫과 支孫이 덩굴 같이 얹혀 뻗어 나가게 하시고²⁴⁾

수명을 길이 연장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²⁵⁾

높으시고 참되신 분께서는 낮고 간소한 제사를 굶어 歆饗하시고, 年을 내리심을 길게 하시어 玉籍에 올림으로써 長生하게 하시고, 무궁토록 넉넉함을 베풀어 蘿圖를 튼튼히 보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이옵니다.²⁶⁾

하늘별이 창생을 건지시는데 곡진하나 남몰래 도움을 드리우시고, 臣子가 장수를 빚은 오직 지성으로써 함이오니, 빌기를 진실로 부지런히 하오면 느껴 통함이 가까운데 있습니다.²⁷⁾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장수가 으뜸의 기원이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전통적인 기복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례의 기원내용은 국가적 차원이건 개인적 차원이건 민간에서의 복이란 부(富), 수(壽), 강(康), 녕(寧)등이고,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과 죽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하늘에 기원했던 것이다. 요컨대, 초례의 기원내용은 양재초복으로 압축할 수 있다.

2. 유교적 종법질서 안의 초월자에 대한 종교적 신앙

밖에서 기복하기보다는 내면의 심성수양을 강조했던 성리학자들은 관혼상제 등의 초례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국가적인 초례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유학자들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국가적 규모의 초례는 조선중기로 접어들수록 미신으로 취급받게 되고 잦은 반대의견에 직면하게 된다. 조선 중종때 정암(靜庵) 조광조와 같은 사림의 지도자는 초례를 주관하는 소격서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소위 기묘사화의 실마리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24 『東文選』 卷115. 靑詞, 乾德殿醮禮靑詞, 金克己年壽等樛椿之久 本支同葛藟之綿.

25 『東文選』 卷115. 靑詞, 乾興節太一靑詞, 金克己享壽錄之延洪.

26 『東文選』 卷115. 靑詞, 北斗請詞.

27 『東文選』 卷115. 靑詞, 卞季良. 親試文武科 合行本命醮 年例通行靑詞, 天星濟生 曲垂陰薦 臣子祝壽 惟以至誠 祈叩苟勤 感通卽邇.

중종 당시의 국가적 초례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 나라는 三清에 醺祭하고 老子를 으뜸으로 하여 이를 관장하는 부서를 두어 그 옳지 않음이 크나,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매우 막연하게 복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참람하게 大禮라하여 경비를 낭비하며 나라의 근본을 깎습니다.²⁸⁾

경비가 많이 들고 복을 받지 못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원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종법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사대(事大)가 대의명분을 세우기 때문이다. 중국의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할 수 있고, 제후국은 종묘사직에만 제사해야하고, 서민들은 종자(宗子)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초례는 유교적 위계 질서를 어기는 것으로 취급받게 된다.

그러나 유교의 중심인물인 孔子는 聖人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서 신격화되지는 않았다. 중국의 황제나 조선의 국왕이 성인(聖人)으로서 성균관에서 알성(謁聖)을 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관혼상제의 의례에서 양재초복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바로 이점에서 유교가 중심사상이면서도 불교와 도교가 공존할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던 것이다. 성년례인 관례가 『朱子家禮』에 근거한 유교적 의례이면서도 초례가 중요한 의식의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종교적 경건성을 종래의 민간신앙을 통해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민중의 종교적 심성을 반영한 것이다.

혼례의 경우는 아예 그 명칭자체를 초례라고 할 정도로 결혼식 자체가 초월적 존재에 대해 의례를 올리는 형식을 취했다. 결혼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상례는 가장 유교적인 의식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불교적이고 도교적인 의식이 많이 남아있는 의례의 하나다. 일단은 저승의 개념이 약한 유교이기에 상여소리자체가 ‘관음보살’을 부르는 불교적인 만가(輓歌)가 그대로 민간에서 남아있었다. 또한 망자(亡者)를 일곱을 단위로 염습한다던가 칠성판에 올린다는 것도 칠성신앙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제례(祭禮)의 경우가 가장 유교적인 면이 강하다. 제례란 조상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히 초월적 존재를 상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28 『조선왕조실록』, 중종 25년. 경진년 여름 4월 을축. 사간원 대사간 박광영의 상소

있다.

그래서 초례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행위는 유교적 사회라고 일컫고 있는 조선조에서도 민간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여기에는 구체적인 교주도 교리도 교단도 그리고 특별한 윤리적 계율도 없었다. 다만 정성과 공경의 마음으로 복된 삶을 술과 안주를 차리고 하늘의 별들과 초자연적 존재를 향해 여전히 복을 기원했던 것이다.

V. 맺는말

초례의 종교적 의미는 경건한 재계(齋戒)를 통해 하늘에 양재초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밤하늘을 향해서 경건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원초적으로 인간이 갖는 종교적 ‘거룩함’인 것이며 초례에서는 그러한 거룩함을 재계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초례는 흔히 도교의 의례로 알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분류라고 볼 수 없다. 노자가 도교에서 신격화되었다고 해서 노자의 철학의 도교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숙(星宿)에 대한 민간신앙도 도교에 의해 수용되지만 그것은 도교신앙이전에 존재했던 것이다.

한국의 불교에서도 성숙신앙이 잔존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 칠성을 봉안하는 칠성신앙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현대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기업의 이름까지 별에 관련된 이름은 수다하다. 그러한 초례의 경건한 의례는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재앙을 막고 축복을 구했던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표현한 것이었다.